

‘이방인’ 품어준 마을 위한 보은의 숲

▲ 숲 속의 전남

〈3〉화순 이양 목곡 마을숲·보성강 웅치강산교 하천숲

새로 생긴 도로 너무 삭막해
저수지 길 벚꽃 3천그루 심어
외지인 반기는 진심 담았죠



김금심 목곡1구 이장이 주민들과 함께 내년이면 피어날 벚꽃을 고대하며, 도로를 걷고 있다.

화순 이양 목곡 마을숲 목곡1구마을회



김금심 이장

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을 반기는 주민들의
진심한 마음을 담은 것은 물론이다.

마을은 한참
멀다. 장치저수
지를 건너 마을
까지 가려면 수
km를 더 가야한
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 먼
곳에 벚꽃을 심
었다. 좋은 마을
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을 반기는 주민들의
진심한 마음을 담은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한참을 걸어가면 목곡 1구가 나

온다. 26호 4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현장에 갔더니 주민 10여 명이 모두 목곡교까지 나와 낯설어하는 이방인들을 정겹게 맞았다.

‘숲 속의 전남’ 사업의 주민참여숲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는 마을 이장 김금심(여·57)씨였다.

사실 그녀는 광주 출신이며, 즉 ‘이방인’이다. 광주에서 남편을 만나 부부가 된 뒤 도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남편의 권유로 이 마을을 찾은 것이 31살 때다.

도시치러였던 김 이장이 26년을 억척스

럽게 살며 2남2녀를 낳아 길러 시집·장가 보내고, 8년 전에는 남편도 유명을 달리했지만,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웃들이 하나둘 쟁겨워서 적응할 수 있었어요. 고마울 따름이죠. 고생은 말도 못하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추억이더라고요. 이 마을에 산다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녀와 주민들은 외지에 나갔다가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새로 생긴 도로가 너무 삭막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은 마을인데, 임구는 그러한 마을 풍경과 거리가 멀었다.

마침 참여 의지가 있다면, 어디가 됐든 지원을 받아 나무로 꾸밀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 주민들이 적극 나섰다.

“40여 명 주민 모두가 나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을 어르신 더 잘 모시고 목곡이 이 마을에서 살아가렵니다.”

김 이장과 주민들의 마음에는 이미 벚꽃이 만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림산 오가는 길 녹색바람 스며든다

보성강 웅치강산교 하천숲 보성군새마을협의회



임영서 회장

산까지 눈에 들어오며, 바다쪽으로는 보성만,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전망대다.

차밭이 많아 일림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녹차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일림산이 있는 웅치면은 서편제 비조(鼻祖) 박유전이 태어난 곳으로, 판소리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야할 곳이다.

봄이 되면 철쭉이 핀다.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로, 150ha에 이르는 면적에 어른 키만큼 자란 진홍빛이 온 산을 덮는 장관을 볼 수 있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다. 올해로 철쭉제가 15회째 열렸다.

보성군새마을협의회가 폐지된 구도로에 주목한 것은 오가는 외지인에게 일림산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웅치교로 보성강을 건너는 895번 지방도는 다시 웅치강산교를 건너는데, 굴곡진 부분에서 운전자나 탑승객들의 눈은 폐지된 구도로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숲으로 조성해 오가는 이들에게 상쾌함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 임영서(65) 보성군새마을협의회장의 말이다. 그는 “멀리서 온 외지인이라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남도 주민참여숲 공모에 참여하게 됐다”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고향을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웅치면 강산리는 박유전 선생의 고향이기도 했다.

임 회장은 보성읍에서 30년 이상 학생복을 판매하면서 새마을협의회원으로 꾸준한 일도 도맡아했다. 이번 숲 조성사업도 회원들을 일일이 설득한 그의 노력이 아니었

으면 불가능했다.

“회원이 750명입니다. 15명이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나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면 울창한 숲이 돼 오고 가는 이들에게 좋은 그늘과 풍경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숲은 일림산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생각에 전남도의 참여숲 공모에 참여했다.

구도로 아스팔트 걷어내고
단풍·동백나무·의자 등 조성
회원들 주말마다 숲 가꾸기로

■하천숲 정보
-주소 :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101-11 일원
-면적 : 5000㎡
-내역 :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 교목 200그루, 관목 1300그루, 등 의자 3조, 흔들의자 2개
-장소 : 웅치교와 강산교 사이
-목적 : 경관 조성 등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김성훈한의원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문의 160315-중-30749

Yellow ID TALK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하세요.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www.epocrates.co.kr

원다리교정

체형교정

두암타운사거리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

☎(062)263-8275